

여러분께 드립니다.

“2011 년 5 월 21 일이 세상의 종말이다.”라는 심각한 이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,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아지고, 또 성경에근 2000 숨겨졌던 여러 가지 새로운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년 동안 사단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. 사실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. 우리 인간의 눈으로 현저하게 볼 수 있는 예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.

이단 중 이단인 카톨릭교회: 로마카톨릭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과 또한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,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거리가 먼 종교단체입니다(사 29:10-14, 렘 14:14-15, 렘 23:, 겔 13:). 이 단체는 기독교인의 인구, 2,254, 535,000 의 50%인 1,130,418,000,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로마카톨릭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성경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“그리스도의 이름”만을 살짝 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(고후 11:13-15). 로마카톨릭교회는 신교의 큰집이라고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. 사실상 신교는 로마카톨릭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한(종교개혁)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. 그러나 신교는 로마카톨릭교에서 배운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저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운영합니다. 이 사실은 이사야 4 장에서 일곱 여자를 말씀하셨고, 그 여자 중 가장 현저한 큰언니가 로마카톨릭교회라면, 신교의 교단은 그 큰언니의 동생들임을 성경은 가르칩니다. 동일한 점은 모두가 한 남자(그리스도)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.

로마카톨릭교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성경말씀에 가장 음란한 여인을 거듭거듭 지적하신 것을 살펴볼 때에 우선적으로 로마카톨릭교를 손꼽게 됩니다.

“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므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앓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길로 행하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썼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”(겔 23:11--15)

이 구절에서 “아우”는 기성교회이며 형은 이스라엘입니다. 이 형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 왔습니다.

교회에서 도망해 나오라는 명령: 그리스도(창조주 하나님)를 예배한다는 교회가 마리아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치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쌓고, 그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믿었던 것과 (출:32)동일합니다. 여신을 섬기는 일은 많은 이방종교가 시행 해왔고, 마리아를 숭배하는 로마카톨릭교회가 곧 이방종교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. 로마카톨릭교회가 호화찬란한 예배 규례와 또 모든 제도가 성경의 하나님을 강력히 부인하는 증거입니다.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음을 선언 하셨습니다. 카톨릭교회에 속해있습니까? 도망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(마 24:16).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카톨릭교 교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입니다.

물론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.

교회를 사단이 다스리고 있음: 신교(新敎)교파(敎派)에 속한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. 성경은 세상종말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시각에는, 모든 교회를 사단이 다스리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(계 18:7,계 2:9,13). 교회는 멸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교회에서 도망해 나와야합니다. 도망해 나오는 일은 “인연을 끊어라”는 명령이 아닙니까? “목사의 직분을 잘하라”는 명령이 아니고 “목사직을 사직하라”는 명령입니다. 저희들 뉴스레터의 독자 중 친하게 된 한 목사님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번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.

그러나 문제는 나는 성경말씀에 의존하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들입니다. 그들은 다른 교회만이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내 교회가 불에 타 버릴 것이라는 실상을 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목사님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의 종말을 성경말씀에서 직감하는 일이며, 현대기성교회에 “멸망의 가증한 것”이 서 있는 실상을 말씀에서 감지하시기 바랍니다.

잘하고 있는 교회에는 상관없이 교회시대는 끝이 났습니다.(계 18:4)

“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신령하고 성경적입니다”라고 믿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친애하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. 교회시대가 끝이 난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.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끝이 났다는 사실이며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이스라엘의 제사 법이 폐지된 것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.

또 다른 더 정확한 비교는 예레미야 서에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.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파피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면 살리라고 하신 기록입니다(렘 27:12,17). 그 때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를 믿지 못했습니다. 남아있던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한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.

또 다른 비교가 있습니다.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흉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에 내려간 사실입니다(창 46:3-4).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던 교회에 흉년이 들었고, 그 흉년은 말씀이 없어진 흉년이 아니고, 말씀을 듣지 못하는 흉년입니다(암 8:11). 성경은 그 흉년이 든 교회에서 나오도록 명령하십니다.

오늘은 윤희철 장로님께서 번역하신 전도지를 보내드립니다. 윤장로님은 우리 복음회를 함께 창설하셨고, 내외분께서 오른팔이 되어 도와주시며, 여러 해 동안 한국이민 교회회의 설립과 운영을 경험하신 신실한 성경 학도이십니다. 번역한 전도지야말로 장로님께서 여러분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시급한 성경말씀입니다. 친필로 쓰신 글이 더욱 귀하게 여겨져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. 윤 장로님의 건강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안녕히 계십시오

이대우 가족들임, 3-10-2010